

새정치, 7·30 재·보선 공천 키워드는 ‘변화’ 여, 당권경쟁속으로

6·4선거서 지역민심 요구 높아 혁신 선도할 새 인물 발굴해야

7·30일 치러지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키워드는 ‘변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요구는 ‘변화’로 집약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전략공천의 후폭풍과 무소속 후보단일화 효과를 극복하고 시민사회 출신의 윤창현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2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당선됐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변화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도 고질화된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뚜렷한 대권주자나 당권주자도 없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보다는 정치적 양지를 지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이 상징적으로 야권의 심장으로서 불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청권의 영향력에도 못 미친지가 오래됐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역 초선 의원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대선 의원들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무기력증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이번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게는 두 곳, 많게는 네 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광주·전남 정치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를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보궐 선거라는 점에서 전략공천이나 경선에서 벗어나 500여명 안팎의 광주와 전남 시민회의를 구성, 교황 선출 방식의 공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민심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학구조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혁신적 공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려, ‘공천은 당선’이라는 인식 아래 나눠먹기식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재보궐 선거를 노리는 일부 입지자들은 지도부인 사들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 특성상 경선은 어렵고 전략공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 지도부가 호남의 변화 요구를 얼마나 인지하고 관철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무성 “기득권 포기” 출마 선언

서청원 의원도 내일 출사표 던질 듯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번 지도부는 ‘미니 총선’ 규모로 열릴 7·30 재·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며 결과가 좋으면 길게는 2016년 20대 총선까지 책임진다.

당권 경쟁은 김무성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가 요구하는 소명을 다하고자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면서 “기득권을 철저히 버리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박 원로 그룹을 대표하는 서청원 의원도 당권 도전에 나선다. 서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변화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전대 출마를 위한 출정식을 갖는다.

서 의원은 대선 관리를 위해 경륜 있는 인사가 중립적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의 양자 구도로 당권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에 최경환 전 원내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가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내각 차출설이 있어 출마 여부가 확실치 않다.

이인제 의원도 10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지만 경쟁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 20만명 안팎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1인2표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최대 득표자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나머지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전국 권역별로 합동 유세와 TV토론회를 벌이고 7월13일은 전국 각지에서, 14일에는 전당대회에서 각각 투표를 한 후, 합산해 개표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담하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 민생문제 등 국회 현안을 서로 머리 맞대고 긴밀히 협의하자”고 말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1년 내내 여는 상시국회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 정례화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회담 매주 열자”

민생문제 등 현안 긴밀 협의

관피아방지특위 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 민생문제 등 국회 현안을 서로 머리 맞대고 긴밀히 협의하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1년 내내 여는 상시국회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일하는 상시국회”를 모토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대야 압박을 강화하면서 7·30 재·보선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새롭게 혁신하는 국회를 위해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예결위 및 정보의 일반 상임위화를 통한 예·결산 부실심의 방지 및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상임위법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여야가 합의한 6월 국정감사 진행을 비롯, 상임위법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등을 거듭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 및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당내에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특별위’(위원장 강기정·간사 진성미 의원)와 당 ‘정부조직개편특위’(위원장 조장식·간사 유대운)도 각각 구성했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직식 위원장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졸속개편은 안되고 국민 동의 과정이 전제돼야 하며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3대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KBS 이사회의 길 환영 사장 해임제정안 가결과 관련, “KBS, MBC 등 공영방송의 현행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사들이) 국민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한달 소감에 대해 “정말 폭풍같은 한달이 지나갔다”며 6·4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金·安 투톱, 2차 시험대 재·보선에 승부 건다

지방선거 ‘경기·인천 패배’로 당 안팎 시련...타개책 고심

새정치민주연합 김관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6·4지방선거 결과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이 같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고심 중이다.

두 대표는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6월 국회 전략과 당직 개편, 7·30 재·보궐선거 대비 등 정국 구상에 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직후 우원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이기지 못한 선거”라며 당의 전략을 비판했고, 당 중진인 박지연 의원 등도 방

송 인터뷰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공개 제기하며 김·안 두 대표를 몰아세웠다.

특히 ‘뒷받’인 전남의 22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8곳이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하고 전북의 14개 기초단체장 선거 중 7곳에서 무소속이 당선되자 이준석 전북도 당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해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세월호 국정조사 등 6월 국회를 주도함으로써 지도부 흔들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이번 선거 결과

는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견제와 대안제시를 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국정조사를 포함해 6월 국회를 잘 끌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두 대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혁신안도 준비 중이며 당직개편을 통한 분위기 쇄신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과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책위의장과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만료됐다.

나이가 김·안 두 대표에게 진짜 승부처는 7·30 재보선이라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두 대표는 최소 12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잡음없는 공천을 하면서도 참신한 인재를 수혈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광주시장 선거 승리를 ‘전략공천 용인’이라는 식으로 왜곡 해석하지 말고 이번 재보선에서는 ‘자기 사람 챙기기’나 ‘타개파 제거’ 등의 구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김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신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신투자전략 무료 특강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미래는 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중저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6.11.(수)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도 월세받는 투자기법 공개
- 개발지 성공투자하는 비법공개
-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다수특강
(현)전국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6월 1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점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재출시료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